



2001년
4월 15일
제 32 호

(1998년 9월 15일 창간)

춘천성시신문

나침반
교회개신·부흥·복음화운동
교회연합협력운동
새로운 도시 모범시민운동
세계복음화 기도운동

발행·인쇄인: 임택창 편집인: 조충환 (200-091) 춘천시 효자1동373-90 대표전화 (033)256-1260-1 FAX(033)257-1260

뉴욕·춘천 성시토론회 개최

- 춘천, 뉴욕 대표자 5인 주제발표 -

춘천성시화운동본부(본부장 임택창목사)는 4월9일 오전 10~12시까지 동부방로교회(담임목사 임성일)에서 다수의 교회지도자가 모인 가운데 급변하는 성시 토론회를 개최했다.

본 토론회는 '춘천교회포럼(Chuncheon Churches' Forum)'이 주관했으며 뉴욕과 춘천성시화운동의 당면과제와 비전에 대한 발언을 마친후 앞으로 성시화운동의 세계적인 확산과 효과적인 추진 전략을 도출하기 위한 것이다.

춘천성시화운동은 1971년 첫 있는 소수에 의해 시작되고 72년 한국대학생선교회(CCC)가 전례 도시 복음화를 위해 전도활동을 했다. 그 후 92년 8월2일 초교과 연합대회를 통해 연합적인 운동으로 세상에 알려졌으며 96년 9월 기독교연합회 창립과 성시본부 조직으로 본격적인 운동을 시작하게 되었다.

91년 가을부터 '성시화기도모임'을 조직 오늘날까지 계속하고 있으며 지난 2월부터 2개월 간격으로 교회를 순방, 초교과 심야연합기도회를 가지고 있다. 또, 98년 9월부터 매월 '성시신문'을 발행하고 금년 1월11일 인터네트홈페이지를 개설, 운영하고 있다.

이날 토론회의 발표주제는 ▶'성시화운동에 있어서의 작은 단위 연합의 필요성' 박민권 목사 [CCF(Chuncheon

Churches' Forum)대표 권영진목사(담임목사)]

▶'춘천성시화운동과 기도운동' 유근철 목사 [춘천성시화운동본부 기도본부위원장 김원태목사(담임목사)]

▶'뉴욕교회의 네트워크와 선교운동'

▶'성시화운동의 네트워크와 춘천성시화운동' 장경호 목사 [춘천대학생선교회연합회(한국대학생선교회(CCC)춘천지부 대표목사)]

▶'성시화운동과 춘천성시화운동' 박성진 목사 [메수사람운동 대표 제임스교회 담임목사]

이였다.

우리지역의 교회는 무한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지만 교파와 교단 개교회주의적인 사고로 인해 그 역량을 상실하고 무능한 상태에 있다는 현실을 지적하면서 우리의 사회와 종교악을 치유하지 못하므로 발생하는 제반문제의 해소를 위해서는 진정한 교회연합이 시급하다고 역설했다.

대안으로 지역교회연합체를 구축으로 하여 수평적 위치의 소그룹을 만들고 넷워크(Net Work)로 상호 연결, 결집력이 강한 소그룹들의 성공적인 연합을 통해 전체 연합을 이루는 것이었으며 회중들의 호응을 받았다.

토론회에서 몇 사람의 이름을 위한 연합운동이나 행사운동을 탐미하여 실질적이고 생산적이며 목회에 도움이 되는 연합운동이 돼야 한다고 개선을 요구했다.

뉴욕대표는 교회연합은 지도자들간의 관계형성이 함께 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가져야 한다. 지도자역할 속에서 관계형성이 이루어진다면, 뉴욕연합 활동에서 지도한 결과 서로를 이해하고 협력하는 일이 일어났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기도와 실행으로 연합된다 고 말했다.

자기가 살면 연합은 죽는다는 의미를 주는 말이었다. 이번 토론회에 제시된 방안들은 각 분야별 연구도론 등을 거쳐 좋은 방안을 도출하기로 하고 토론회를 마무리했다.

이날 토론회는 성시화운동에 있어서의 작은 단위 연합의 필요성' 박민권 목사 [CCF(Chuncheon Churches' Forum)대표 권영진목사(담임목사)]

▶'춘천성시화운동과 기도운동' 유근철 목사 [춘천성시화운동본부 기도본부위원장 김원태목사(담임목사)]

▶'뉴욕교회의 네트워크와 선교운동' 장경호 목사 [춘천대학생선교회연합회(한국대학생선교회(CCC)춘천지부 대표목사)]

▶'성시화운동의 네트워크와 춘천성시화운동' 박성진 목사 [메수사람운동 대표 제임스교회 담임목사]

이였다.

우리지역의 교회는 무한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지만 교파와 교단 개교회주의적인 사고로 인해 그 역량을 상실하고 무능한 상태에 있다는 현실을 지적하면서 우리의 사회와 종교악을 치유하지 못하므로 발생하는 제반문제의 해소를 위해서는 진정한 교회연합이 시급하다고 역설했다.

토론회에서 몇 사람의 이름을 위한 연합운동이나 행사운동을 탐미하여 실질적이고 생산적이며 목회에 도움이 되는 연합운동이 돼야 한다고 개선을 요구했다.

뉴욕대표는 교회연합은 지도자들간의 관계형성이 함께 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가져야 한다. 지도자역할 속에서 관계형성이 이루어진다면, 뉴욕연합 활동에서 지도한 결과 서로를 이해하고 협력하는 일이 일어났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기도와 실행으로 연합된다 고 말했다.

자기가 살면 연합은 죽는다는 의미를 주는 말이었다. 이번 토론회에 제시된 방안들은 각 분야별 연구도론 등을 거쳐 좋은 방안을 도출하기로 하고 토론회를 마무리했다.

이날 토론회는 성시화운동에 있어서의 작은 단위 연합의 필요성' 박민권 목사 [CCF(Chuncheon Churches' Forum)대표 권영진목사(담임목사)]

▶'춘천성시화운동과 기도운동' 유근철 목사 [춘천성시화운동본부 기도본부위원장 김원태목사(담임목사)]

▶'뉴욕교회의 네트워크와 선교운동' 장경호 목사 [춘천대학생선교회연합회(한국대학생선교회(CCC)춘천지부 대표목사)]

▶'성시화운동의 네트워크와 춘천성시화운동' 박성진 목사 [메수사람운동 대표 제임스교회 담임목사]

이였다.

우리지역의 교회는 무한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지만 교파와 교단 개교회주의적인 사고로 인해 그 역량을 상실하고 무능한 상태에 있다는 현실을 지적하면서 우리의 사회와 종교악을 치유하지 못하므로 발생하는 제반문제의 해소를 위해서는 진정한 교회연합이 시급하다고 역설했다.

토론회에서 몇 사람의 이름을 위한 연합운동이나 행사운동을 탐미하여 실질적이고 생산적이며 목회에 도움이 되는 연합운동이 돼야 한다고 개선을 요구했다.

뉴욕대표는 교회연합은 지도자들간의 관계형성이 함께 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가져야 한다. 지도자역할 속에서 관계형성이 이루어진다면, 뉴욕연합 활동에서 지도한 결과 서로를 이해하고 협력하는 일이 일어났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기도와 실행으로 연합된다 고 말했다.

자기가 살면 연합은 죽는다는 의미를 주는 말이었다. 이번 토론회에 제시된 방안들은 각 분야별 연구도론 등을 거쳐 좋은 방안을 도출하기로 하고 토론회를 마무리했다.

강원청소년 영성집회 열기 증만

-1천여 중고생 참여, 담 빅터·박상철목사 인도-

메수사람운동은 4월7일 오후6시부터 9시까지 석사강리교회에서 강원도내 중고생 1천여명이 모인 가운데 청소년 영성집회를 위한 선교대회를 가졌다. 이번 선교대회를 통해 예수 믿지 않은 학생들을 결신시키고 전도자로 양육하는 두가지 효과를 얻을 수 있었다.

이와 같이 한 장소에서 영성집회를 열기까지 메수사람운동 회원교회 목사들이 19개 학교를 담당하여 지도했고 그 결과, 학교마다 '기독교대리'가 조직되어 활발한 사역으로 결신하는 학생이 증가하는 학원목회의 선진기지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기독교대리 멤버 중 20명은 작년 일본과 춘천에서 노방집회에 참여했으며 금년에는 방학기간을 통해 전도운동을 벌일 계획이다.

이날 강사로 춘천을 방문한 뉴욕교회협의회 대표 담 빅터

(TomVictor)목사의 메시지(통역 이영진목사)를 통해 학생들은 예수 믿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는 믿음을 확신하게 되었다.

순수하고 열정적인 찬양으로 서로의 마음을 열었고 박상철목사의 다이나믹한 말로써 '죽으면 죽으리라'는 전도자로서의 비전을 품었다.

교회는 이제 청소년 선교에 중점을 두고 방황하는 이 시대의 아이들을 영적으로 무장시켜 청소년 신자가 급증하는 교회의 문제를 해소해 나가야 하며 부흥과 부흥, 범죄가 난무하는 사회에 희망을 주는 일에 앞장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청소년들이 믿음으로 새로워져야만 우리 사회를 정상적인 위치에 올려놓을 수 있다.

메수사람운동 033)244-5400
http://cafe.daum.net/holykids/

금요심야연합기도모임 하나된 교회모습 실현한다

춘천성시화운동본부(본부장 임택창목사)는 4월21일 밤 9시30분부터 자정까지 순복음춘천교회 만민성전에서 제2차 금요심야연합기도회를 갖는다. 춘천교회와 사회의 모든 영역이 복음화로 새롭게 되기를 소망하는 성도들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모든 기독교인은 2개월마다 열리는 심야연합기도회를 특별히 기도하는 날로 정하여 율리와 도덕,가치관이 전도되고 있는 우리 사회 구원을 위해 함께 모여서 하나된 교회모습을 이루고자 한다.

심야연합기도회는 모든 교회와 교인이 하나된 역사적인 모임으로서 교파를 초월한 교회들의 목사들과 교인들이 기도회를 담당하

고 안수원 목사들은 사전 기도모임하고 참석한 모든 성도들에게 이날 정성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려 헌금은 춘천성시화 운동을 위한 여러 지역에 밀기름으로 쓰여진다.

기도회 순서 담당자는 ①부친안수원목사(춘천성시화운동본부장) ②부친안수원목사(춘천성시화운동본부장) ③부친안수원목사(춘천성시화운동본부장) ④부친안수원목사(춘천성시화운동본부장) ⑤부친안수원목사(춘천성시화운동본부장) ⑥부친안수원목사(춘천성시화운동본부장) ⑦부친안수원목사(춘천성시화운동본부장) ⑧부친안수원목사(춘천성시화운동본부장) ⑨부친안수원목사(춘천성시화운동본부장) ⑩부친안수원목사(춘천성시화운동본부장)

성시화도시 부활절 십자가행진 -4월15일 오후2시 공직전에서 삼천리동산 1.2km-

21세기 첫 부활절 성시와 도시 춘천에서는 역사적인 십자가행진행진이 있었다. 전국 최초로 성시와 운동을 일으킨 교당으로서 기독교 문화 행사를 통해 기독교 도시를 조성해 나가야 한다는 의견에 뜻을 같이한 성시본부 일꾼들이 주축이 되어 십자가가 지체할 때까지 행진하게 되었다.

이마추어졌으나 춘천의 기독교 문화행사를 만들겠다는 일념으로 소수의 생각을 모아 행사를 계획, 추진하게 되었으며 그 결과 수십 교회 목사와 성도들의 동참으로 큰 기독교문화 행사의 첫 발을 내딛었다.

동 행사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수 많은 역할과 프로그램 작성, 시나리오, 행진계획, 담당, 예배준비, 재정지원, 십자가를 지는 일과 매달리는 역할, 방송사, 음악 등 많은 소모품이 필요했음에도 이를 위해 춘천 CCC대학생선교회와 YWAM예수전도단 간사, 학생들이 수고했다.

신종철인수집사(CBS소년소녀합창단장)가 십자가 모형과 발집대를 제작했고 김영명인수집사(강원도청성경교회)가 십자가를 지고 행진하는 목사, 교회의 개원일과 헌신으로 충당했다.

행진 출발을 알릴 불꽃주야로 수고했다. CBS춘천 기독교방송 소년소녀합창단과 교회 성가대가 부활 찬양을 담당했고 이 밖에 성시본부장 유근철목사, 김원태목사(지상선교회회장)설교 김주환목사(춘천기독교연합회) ③부친안수원목사(춘천성시화운동본부장) ④부친안수원목사(춘천성시화운동본부장) ⑤부친안수원목사(춘천성시화운동본부장) ⑥부친안수원목사(춘천성시화운동본부장) ⑦부친안수원목사(춘천성시화운동본부장) ⑧부친안수원목사(춘천성시화운동본부장) ⑨부친안수원목사(춘천성시화운동본부장) ⑩부친안수원목사(춘천성시화운동본부장)

행진 출발을 알릴 불꽃주야로 수고했다. CBS춘천 기독교방송 소년소녀합창단과 교회 성가대가 부활 찬양을 담당했고 이 밖에 성시본부장 유근철목사, 김원태목사(지상선교회회장)설교 김주환목사(춘천기독교연합회) ③부친안수원목사(춘천성시화운동본부장) ④부친안수원목사(춘천성시화운동본부장) ⑤부친안수원목사(춘천성시화운동본부장) ⑥부친안수원목사(춘천성시화운동본부장) ⑦부친안수원목사(춘천성시화운동본부장) ⑧부친안수원목사(춘천성시화운동본부장) ⑨부친안수원목사(춘천성시화운동본부장) ⑩부친안수원목사(춘천성시화운동본부장)

행진 출발을 알릴 불꽃주야로 수고했다. CBS춘천 기독교방송 소년소녀합창단과 교회 성가대가 부활 찬양을 담당했고 이 밖에 성시본부장 유근철목사, 김원태목사(지상선교회회장)설교 김주환목사(춘천기독교연합회) ③부친안수원목사(춘천성시화운동본부장) ④부친안수원목사(춘천성시화운동본부장) ⑤부친안수원목사(춘천성시화운동본부장) ⑥부친안수원목사(춘천성시화운동본부장) ⑦부친안수원목사(춘천성시화운동본부장) ⑧부친안수원목사(춘천성시화운동본부장) ⑨부친안수원목사(춘천성시화운동본부장) ⑩부친안수원목사(춘천성시화운동본부장)

행진 출발을 알릴 불꽃주야로 수고했다. CBS춘천 기독교방송 소년소녀합창단과 교회 성가대가 부활 찬양을 담당했고 이 밖에 성시본부장 유근철목사, 김원태목사(지상선교회회장)설교 김주환목사(춘천기독교연합회) ③부친안수원목사(춘천성시화운동본부장) ④부친안수원목사(춘천성시화운동본부장) ⑤부친안수원목사(춘천성시화운동본부장) ⑥부친안수원목사(춘천성시화운동본부장) ⑦부친안수원목사(춘천성시화운동본부장) ⑧부친안수원목사(춘천성시화운동본부장) ⑨부친안수원목사(춘천성시화운동본부장) ⑩부친안수원목사(춘천성시화운동본부장)

예수 부활하셨네 할렐루야!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
순복음춘천교회
담임목사 김주환
춘천시 효자2동 651번지 순복음춘천교회 ☎(033)253-2741

대한예수교장로회
춘천중앙장로교회
담임목사 사공정
춘천시 피계동 669-2번지 중앙장로교회 ☎(033)257-2001

기독교대한교회
석사강리교회
담임목사 임택창
춘천시 석사동 산 27-21번지 석사교회 ☎(033)262-6803

만능과 기도로 치료하는
영광한의원
원장 이용규 정교
춘천시 후평2동 801-2번지 TEL.(033)251-2003-4

정형외과·신경정신과
베드로선교센터
정형외과전문의(의학박사) 조은제 장로·신경정신과 전문의 기정희 권사
춘천시 효자2동 312-1번지 베드로병원(법민 열) TEL.(033)253-5171

주식회사 유성
"성령의 불꽃로 춘천을 인도하십시오"
대표이사 신종철 인수집사(춘천CBS소년소녀합창단 단장 춘천출리클럽 총무)
춘천시 석사동 693-3번지 유성건설 TEL.(033)261-6661/262-6662

ccbook 춘천기독교 인터넷 서점
www.ccbook.net
춘천시 효자2동 654-2 팔도광장 속빌딩 4층 춘천기독교대학 대표 서점학전도사 문의처:
033)257-5725 E-mail: alaba@hosanna.net

21세기 신학의 요람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원 대학교 춘천캠퍼스
WESTMINSTER GRADUATE SCHOOL OF THEOLOGY CHUNCHEON CAMPUS
200-852 춘천시 동면 만리길 555-1번지 국제선교훈련원(IMTI)
TEL.(033)243-6701-4 FAX.(033)243-6705 E-mail: westminster@jdm.or.kr

알로에는 자연입니다
알로에마임
대표 이만호이사 운영집사
춘천시 효자3동 756-3번지 보훈지청천년터 TEL.(033)242-2665-6

사설

십자가 행진과 기독교문화 도시

누구나 천국은 지옥을 거쳐야 갈 수 있다고 말했다. 즉 천에서 복음의 삶이 위해서는 지옥과 같은 고난을 이겨 내야 한다는 의미일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 더 많은 기독교인들은 육신적인 천국의 삶을 추구하는 경향이 높지 않은가 생각된다.

예수그리스도께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자와 모든 자, 부자와 가난한 자, 간악한 자와 방탕한 자가 있다. 과연 어떤 사람이 복있는 자일까? 하나님 나라의 복은 소유의 많고 적음에 있지 않고 자신을 얼마나 죽이느냐에 있는 것이다.

혹자는 말하기를 십자가는 목에 거는 것이 아니고 등에 짊어지는 것이라고 한다. 약세시대에 민음의 동으로 옮겨지고 다녀야 할 것이다.

십자가는 사형수였지만 예수님에 십자가를 지고서 후 신약시대에는 죽음이 아니라 부활생명의 의미가 되었다.

그리스도인들은 나에게 지워진 십자가를 믿음으로 잘 지고 가야만 한다. 십자가를 지는 일은 자초자결한 순종과 잘 지면 천국행 티켓이 보장된다.

천국 최초 성시도시인 춘천의 기독교인들이 4월15일 부활절날 십자가 행진 이벤트를 가졌다. 60-70대 목사장로와 젊은이들이 무거운 십자가를 등에 지고 2천년전 예수님의 골고다 언덕 십자가를 세웠다. 그러나 십자가를 지는 일이 형식적이고 한번 지는 것으로 구원받을 것이라는 생각은 위험하고 불경스러운 일이다. 연례행사로 전락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이번 춘천에서 행해진 십자가 제행행진은 기독교 문화행사로서 역사적인 의미와 가치를 지니고 있다 하겠다.

내용을 보완하여 기독교문화 행사로서 부속함이 없도록 계승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이제 한국기독교에서도 유두원문화제 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교회에 산재되어 있는 많은 기독교문화 자료를 한데 모아 하나의 의미있고 아름다운 작품으로 내놓아야 한다.

유형문화제로 지정하기에 적합한 오랜 역사를 가진 건물 등은 별로 없다고 하더라도 무형문화제로서의 자료는 성경을 비롯한 기독교 생활 전반에 걸쳐 많이 있다. 하나의 완성된 작품으로 표현하는 일에 힘써야 하며 세계적인 기독교 문화를 이 땅에 정착시키는 일에 모든 역량을 결집해야 한다.

세계 각국 한인선교사 현황 파악

춘천성시본부에서는 성서화 운동의 활성화를 위해 해외 선교사 현황을 파악하고 있는 선교사서 활동중인 선교사 현황을 파악한다.

개인이나 교회, 선교기관, 단체에서 관리하고 있는 선교사서 춘천출신 또는 춘천지역에서 파송된 선교사를 대상으로 오는 4월20일부터 6월30일까지 접수 받는다.

①성명, 성별, 연령, 구분(목사, 선교사 등) ②파송기관, 단체명 ③파송년도, 파송국가 ④주요활동사항 ⑤선교지주소 및 연락처 ⑥춘천주소 및 연락처 ⑦기타
※ 접수처: 춘천시 효자1동 373-90 월드비전 내 1층 성서본부 200-091
☎033)256-1260 FAX. 033)257-1260 E-mail: hollycc@hollycc.org

65세이상 남녀노인에 무료 이미용

홍천읍에 위치한 "만민헤어라인"을 운영하시는 김원사는 5년전부터 65세이상 남녀 노인을 대상으로 매월 마지막주 화요일 만민교회 교육관에서 이미용 서비스를 제공하고 거동이 불편한 노인은 직접 방문하는 등 이웃사랑 실천에 본을 보이고 있다.

김원사는 사업장인 "만민헤어라인"으로 멀리 연세대학교에서도 찾아오는 노인들을 위해 평일에도 무료로 봉사하는데 그 수가 하루 20명을 넘는다. 앞으로 허락되는

날까지 이 이미용 무료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이라며 널리 알려져 더 많은 노인들이 도움을 받기를 바라고 있다. 김원사는 남편 조봉구 장로와 1남1녀의 자녀를 두고 있으며 홍천시지방 여선교회 연합회장, 만민교회 성가대, 교회학교 교사, 찬양단 멤버로 활동하고 있으며 교회와 사회봉사를 사명으로 알고 늘 주위에 웃음을 전하는 보람으로 생활하고 있다.

위치: 홍천읍 신장대리 세창건설물 2층 만민헤어라인 ☎033)435-7774

월드비전 지회 발족

월드비전 강원지부 회전군지회 사역

최현영 목사

(월드비전 회전군지회)
(회전제일교회 담임)

다하는 월드비전 사업이 곧 지역교회에 해야 할 일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지회를 조직하여 온 교회가 협력하고 있다.

1996년 5월 이기우목사(원천교회)와 일부 목자들이 지회를 창립하고 '사랑의 땅'에 참여 하였으며 97년도에는 북한 어린이들을 돕기 위한 제6회 강원 연합성가제 참가 등 월드비전 사역에 협력했다.

현 지회장 최현영목사(회전제일교회)는 회전 출신으로 92년 5월 부임하여 어머님 회전 교회 지회사역을 살릴 수 있을까 기도하던 중 청소년들을 위한 사역에 눈을 돌려 장학금 지급, 길거리농구대회, 영화감상, 독서실 운영, 합창단 운영을 위한 문화공간을 제공하고 있으며 외로운 노인들에게 따뜻한 식사를 제공하는 등 지역사회와 호흡하는 열린교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동

지회를 통해 월드비전에 동참한 목회자들은 고문 이기우목사(원천교회) 총무 서대석목사(회전중앙교회) 서기 이상행목사(신대복음교회) 감사 이운식목사(아바공동체) 이형용장로(회전장로교회, 대평의원장) 운영위원장 이범수목사(상제교회) 임원총무(신광교회) 김준수목사(사랑교회)이다.

월드비전의 나눔과 섬김의 50년 사랑을 계속 이어가기 위해 금년에는 작은 사랑 나누기, 교회순회예배, 사랑의 땅 참여 청소년을 돕기 위한 프로그램, 연합성가제 참가 등 강원지부 사역에 구체적으로 동참하여 비록의 고장 회전지역에 하나님의 잔잔한 사랑을 베풀어 '평화의 못자리'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며 많은 교회의 동참을 통해 넓히는 사랑이 화친 사회를 발원시킬 수 있기를 바란다 고 말했다.

(월드비전 강원지부 김대봉 안수집사)
E-mail: daebong-kang@worldvision.or.kr

홍천교계소식

☞ **홍천군신우회**(김창경 회장)는 4월4일 12시 홍천읍 신장대리 미전대위 2층 한일회관에서 주일영양목사(홍천중앙교회)를 강사로 초청, 경모기도와 모임을 가졌다.

☞ **여수남부회** 주일 연합예배

홍천교회연합회, 홍천읍교회연합회 주관으로 4월15일 오후3시 홍천중앙교회(권오현 담임목사)에서 홍천군 관내 기관단체장 및 군민을 초청하여 부활축하 연합예배를 드렸다. 홍천교회연합회회장 허대만목사의 사회로 김장섭목사(홍천읍교회연합회장) 설교, 교회연합성가대의 찬양, 유재국 국회의원, 이준성 홍천군수 축사와 권오현 목사 축사로 예배드렸으며 2부에는 교회별 성가제를 개회하고 부활절 연합예배에 드린 헌금은 선교사업과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용하고 부활절 기념 헌행사를 실시했다.

☞ **홍천군신우회** 정기예배

홍천군신우회 김창경 회장(의사사무과장)은 4월16일 오후7시 홍천중앙교회(이민수 담임목사)에서 4월 정기예배를 드리고 신우회창립 2주년기념 예배 준비를 위한 회례회를 가졌다.

☞ **홍천민간선교회** 양명환목사는 4월22일부터 28일까지 팔리인 안파파로 선교지에 성도들과 함께 방문하여 부흥회를 인도하고 봉사활동을 펼치고 선교비 200만원을 현지교회 선교사업에 지원한다.

☞ **창조문화연구원**(정용진 담임목사) 이용순장로 외 7명은 3월29일부터 4월3일까지 해외선교를 위한 선교지 답사 및 선교사업 실시 차, 팔리인 지역을 다녀왔으며 선교지 부지매입이 확정되는 대로 건축공사를 시작하고 향후 해외선교사업에 최선을 다할 것을 계획했다.

☞ **기독교대한감리회 동부연회 장영환**(해성회 회장)는 14일 오후7시 홍천온리조지에서 '행복한 가정'이란 주제로 박성희 감목(원주대성교회), 김병복 목사(서울온누리교회)를 초청, 찬양예배를 드리고 부부세미나를 가졌다.

명예지부 홍천지부 이상준로
(E-mail: lee580309@yahoo.co.kr)

중학교 영어, 수학 지도 청소년 공부방 무료 이용

- ▶대상: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일반인
- ▶지도과목: 중학교 그들 영어, 수학 학습지도
- ▶장소: 월드비전 춘천종합사회복지관
- ▶기간: 연중이용
- ▶문의: 033)254-7244 월드비전
- ※귀가시 차량이용

[4월 15일]

사 랑

사람은 주는 것이다
사랑을 받아 보려면 얼마나 기쁜지 몰라
사랑이란 눈물과 감사가 있다
사랑은 자라와 맺이 있다
사랑은 거짓이 없고
사랑은 진정으로 맺어진다
사랑은 믿음이 있어야 하고
사랑은 행실이 있어야 한다
사랑은 영원히 가야 하고
사랑은 동행하는 길을 알아야 된다
사랑으로 세계를 보라
사랑은 다 아름답게 보일 것이다
사랑은 모든 허물을 벗을 수 있다

김희자 집사
(춘천제일교회)

하나님의 딸을 용녀의 딸로 천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계시어 영원까지 계시는 분으로 유일하신 분임을 믿는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보내신 예수의 십자가의 공로를 알고 시인해야 영생할 수 있고(요3:16) 오직 예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길을 확신한다(요14:6). 이것이 기독교인들의 변할 수 없는 믿음이다. 다원화된 사회 속에서 자신들의 종교를 전하는 수단은 여러 가지가 있었으나 이것을 강제화 시켜서는 안된다.

매일 참 우연히 모여져중학교 교가를 보고 감격 받았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단군상을 교내에 설치하여 사회의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었고 기독교인들의 반발을 불러왔었다. 고가 몇백 줄 "아름다운 용녀의 딸들 여기 모였네"에서 용녀의 딸들이란 공의 딸을 말하는 것으로써 단군의 신화를 실재화 하는 것이라 여겨진다.

이제 막 지나가는 청소년들에게 학교에서 앞장서서 고교로 제때에 부르며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교내에는 여러 종교를 갖고 있는 학생들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특정의 한 종교의 특성을 주입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개인적으로 자신의 종교를 널리 알리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겠으나 한 주간에 몇 번씩 부르는데 고개에 삽입하여 부르며 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가질 않는다.

이것을 계속하여 부르다 보면 "아! 나는 단군의 후손이구나!"하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될 것이다. 이것은 보이지 않는 영적인 마귀의 역사가 분명하다. 우리는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야 하는 성도들이며 어서는 안 될 것이다. 예수는 이 땅에 마귀를 전멸하려 오셨다(요3:8). 우리도 이 일을 감당해야 한다. 이것은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주님의 명령이다.

가랑비에 옷 젖는다는 속담도 있듯이 이러한 것들을 3년 동안 부르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이들의 영혼 속에 쑤는 말이라는 인식이 새겨질 것은 너무나 분명하다. 어찌 하나님의 말씀을 쑤는 말로 만들 것인가? 하나님은 영이시고(요4:24), 그 하나님이 우리를 자신의 형상의 모양대로 지으시고(창1:26),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 넣으셨으니 우리도 영적인 인간이 되었다(창2:7).

우리 인간들은 분명하도록 영이신 하나님만을 섬기려 한다. 믿지 않는 한자짐승에 불과한 공이 어찌 우리 딸들의 조상이란 말인가?
춘천의 기독교인들이 우리 모두 영의 눈을 뜨자. 그리고 영적인 일에 관심을 갖자. 그리하여 영적인 전령에 순리하자. 지금도 십자가에 살 빛고 피 흘려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신 주님은 말씀하신다. "마귀의 일을 진멸하라"(요일3:8)". (KJS목사)

3월 성시선교 후원 명단

기인(32명)

김현철 안장숙 황순옥 허순영 안미애 정유양 심기은 최상호 한희원 임은경 김진현 홍순복 최경용 이준재 오홍수 홍성문 정유현 황병관 박동환 정진복 민병영 장기영 엄필남 유태희 김원호 김영명 이학규 이훈호 한순수 유근창 조남진 조종환

민적(44명)

춘천기독교직장선교연합회 (대표회장 김용배)
이찬호/유영순(알로에미임)
조은재/기정희(메트로병원선교센터)
이윤규(영광의원)

특별후원(22명)

춘천중앙장로교회 은의제3교구(성시교구)
허친(도의회의장)

신문장구(2명)

신종원(유성건설)
시정학(ccbook 춘천기독교인넷서점)

명성후원(1명)

이병찬(전 국가정보대학원장)

☆성서후원회(예금주 - 조남진)

농협 203-02-280238 우체국 200022-02-129749
조흥은행 716-01-001389 국민은행 301-01-0585-522

우리는 종종 우리 자신들이 해야 하고 또 할 수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실천하지 않고 기도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 기도를 잠시 멈추고 행동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뜻을 알게 주님이 나에게 행함을 요구하실 때 마땅히 행하는 실천력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의 고장, 춘천의 성스러운 도시화를 위해 이렇듯 없이 빛도 없이 오렌지산 기도와 봉사와 물질로 후원하고 계신 모든 순결 위에 주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춘천이 하나님의 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믿음을 가지고 기꺼이 모퉁이들이 되어주실 후원자가 절실합니다.

나는 일어서서 백성을 섬김에 있어 이끄는 나 스스로 섬김에 있어 내일을 기 다림...예수여시 7:13

춘천기독교 직장인 정오예배 안내
장소: 춘천동부장로교회

일시: 4월24일 화요일 12:00(예배) - 12:35(식사)

설교: 지용환목사(춘천중앙교회) 사회: 안대현(한림대학교장신교회)

기도&특송: 춘천교육대학장신교회

일시: 5월29일 화요일 12:00(예배) - 12:35(식사)

설교: 사공정목사(중앙장로교회) 사회: 안대현(한림대학교장신교회)

기도&특송: 강원도경찰청장신교회

춘천기독교직장선교연합회 정오예배위원장 김용일 033)240-1092



▲ 4월 7일 팀 빅터목사(뉴욕교회협의회 대표) 성서화본부 방문 좌담



▲ 춘천성서화본부 위해 기도하는 중앙장로교회 사공정목사와 성시교구(은의제3교구) 성도들



▲ 4월9일 오후2시 하이테크센터1층에서 배제집사 춘천성서화본부 담당하는 팀 빅터목사와 이영길 선교사 일행

